

신채호의 역사언어학연구에 대한 리해

김영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신채호는 후대들에게 우리 민족의 유구한 애국전통과 찬란한 문화를 소개하고 조국애를 고취할 일념밑에 국사서술에 많은 시간과 정력을 바친 사람이다.》(《김일성전집》 제96권 4페이지)

신채호(호, 무애 또는 단재)는 대표적인 근대계몽사상가이며 애국적인 문필가이다.

신채호는 1880년 충청북도 문의에 있는 량반가정에서 출생하여 어려서부터 전통적인 유교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고루한 유교교리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근대적인 학문의 여러 분야를 연구하였으며 그 과정에 해박한 지식과 독특한 견해를 가지게 됨으로써 이름있는 국학자로, 재능있는 문필가로 되었다.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침략이 로골화되자 신채호는 일제를 반대하여 대중을 각성시키는 계몽사상가로 되었으며 신민회와 여러 애국적인 계몽단체에도 망라되어 활동하였다. 또한 독립운동에도 참가하여 투쟁한것으로 하여 1928년 일제경찰에 체포되었으며 10년 징역형을 받고 갇은 고초를 겪다가 1936년 2월 21일 대련감옥에서 옥사하였다.

신채호는 역사, 어학, 문학 등의 다방면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적극적인 문필활동을 벌리면서 그것을 사회적실천과 결부시켜 국학운동을 전개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투쟁한 초기 국학운동의 선각자였다.

당시 활발하게 전개된 국학운동의 흐름속에서 신채호는 정력적인 집필활동을 벌렸다. 그의 문필활동은 애국적열정을 토로한 여러편의 정론들을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에 발표한것을 비롯하여 《리충무공전》, 《을지문덕전》, 《최도통전》 등의 역사전기과 《조선상고사》, 《조선상고문화사》, 《조선사연구초》 등의 역사저술 그리고 《룡과 룡의 대격전》, 《꿈하늘》과 같은 문학작품에 이르기까지의 넓은 범위에서 다방면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신채호의 문필활동에서 특징적인것은 새것을 지향하는 선진사상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투철한 애국정신으로 일관되어있는것이다.

신채호는 역사가 단순히 이미 있는 사실을 년대순으로 라렬하는 《무정신》의것으로 되거나 또는 주체가 없이 남의 나라에 대한 의존과 예측물로 되는것을 견결히 반대하였다. 그는 역사는 어디까지나 그 나라의 《민족의 발생과 소멸 그 흥망의 상태》를 민족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는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로부터 그는 역사연구에서 어디까지나 애국주의교양의 강력한 수단으로 되어야 한다는 립장을 견지하고있었다.

그는 역사는 결코 《무정신의 기록》인것이 아니라 《민족정신》의 발현으로 되어야 하며 따라서 역사와 애국심과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당시 조선인민의 반침략, 반봉건투쟁도 다름아닌 《민족정신》의 발현이라고 간주하였으며 동시에 애국심의 개념도 무조건적인것이 아니라 《인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국가에 대해서 발휘하는 충정만이 참으로 애국주의》(우와 같은 글)로 된다고 인정하였다.

바로 이러한 립장으로부터 신채호는 이 시기 인민대중의 반일의병투쟁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우리 인민이 벌린 의병투쟁의 애국주의적성격을 견결히 옹호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력사발전의 진정한 추진력은 이성적으로 계발된 유식한 개인인것이 아니라 광범한 인민대중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는 우리 나라의 력사를 서술함에 있어서 항상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 우리 민족의 단일성과 강대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신채호는 우리 나라 력사에 대한 여러 저술에서 일련의 언어문제와 관련한 자기의 독특한 견해를 내놓음으로써 이 시기 력사언어학연구에 기여하였다.

신채호의 력사언어학연구에 대한 리해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우리 나라의 력사발전에 대한 과학적인식을 가지고 민족어의 발전력사를 서술한것이다.

민족어의 발전력사에 대한 신채호의 견해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민족어의 통일성을 주장한것이다.

신채호는 고대조선의 언어상태를 언급하면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조선반도와 중국의 동북일대의 언어통일이라고 하면서 중국의 문헌에 의하면 고구려, 부여, 옥저, 예, 마한, 진한 등의 언어가 같았다고 주장하였다.

《當時에 가장 可驚할 事實은 現朝鮮各地方과 東三省 各地의 言語統一이다. 이제 三國志로 據하면 高句麗傳에 “言語諸事 多與夫餘同”이라 하며 沃沮傳에 “言語與句麗大同”이라 하니 夫餘, 沃沮, 句麗 三國의 地方은 곧 黑龍, 吉林, 平安, 咸鏡 등이니 右各地의 言語가 同一한 實證이요 … 後漢書 濊傳에는 “如句麗同種言語法俗 大抵相類라 하였은즉… 濊와 句麗의 同言語임이 명백하고 … 慶尙道の 新羅, 京畿, 忠淸道 등의 百濟, 江原道の 濊, 平安道の 樂浪, 咸鏡道の 沃沮, 吉林, 奉天, 黑龍 등이니 右各地의 言語가 同一한 實證이요 … 夫餘와 高句麗가 다 言語가 同一하던 實證이요 … 設令 小部分的 挹婁를 除外할지라도 古朝鮮全幅 — 今朝鮮十三道와 今關東參省이 古代에 言語가 統一된 民族으로 또 史冊에 의하여 보면 그 官制와 風俗은 더욱 差異가 적었던것이다.》(《조선사연구초》 53~55페이지)

신채호는 당시 고구려-부여어와 삼한어가 서로 다른 언어라고 하던 일본의 일부 어용학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타격을 가하면서 조선반도와 동북삼성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광활한 령역에서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였다는데 대하여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는 여러 문헌과 금석문사료에 나오는 고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당시 언어의 통일성을 주장하였으며 그것이 력사적으로 계승되어온 과정에 대하여 자료적으로 론증하였다.

민족어의 발전력사에 대한 신채호의 견해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고구려중심의 언어발전을 주장한것이다.

신채호는 우리 민족어의 력사를 서술하면서 철저하게 고구려를 중심에 놓고 그 정통성을 강조하였다.

신채호는 《조선사연구초》에 수록한 《전후삼한고》에서 《당시에 가장 놀랄만 한 사실은 현조선 각지와 東三省 각지의 언어통일이다.》라고 하면서 옛 문헌에 의하면 《고구려, 부여, 옥저의 지방은 곧 흑룡, 길림, 평안, 함경 등이니 이 여러 지방의 언어가 동일》하며 삼한도 역시 그곳과 언어가 같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기본으로 된 말은 역시 당시 가장 강대하였던 고구려의 말이였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영국사를 보면 16세기까지도 런던과 웰스가 서로 가까운 지방이면서도 언어가 통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는데 반면에 《조선은 고대에 적지 않은 강토에서 언어, 풍속이 남보다 먼저 통일된 민족》으로 존재하였으니 이것이 얼마나 장한 일인가고 공

지높이 자랑하였다.

신채호의 역사언어학연구에 대한 리해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리두식표기의 본질을 밝히고 그와 관련한 일련의 문제들을 서술함으로써 리두식표기의 해석에서 경험을 쌓은것이다.

그는 《조선사연구초》에 수록한 《고사상 리두문 명사해석》에서 리두식표기의 본질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그는 옛 문헌들에서 인명, 지명, 관직명의 표기에 널리 쓰고있는 리두식표기에 대하여 《리두문은 한자의 全音, 全義 혹은 半音, 半義로 만든 일종의 문자》라고 하였다.

종전에는 흔히 리두식표기법을 《한자차자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리두식표기는 한자의 음과 뜻으로 우리 말을 표기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독특한 서사체계로서 그 본질에 대한 신채호의 주장은 비교적 옳은것이라고 할수 있다.

신채호는 리두식표기에서 한자의 전의(全義) 즉 옹근 뜻을 리용한 실례로서 《白》의 옹근 뜻인 《살》을 들었다. 즉 《상살이(우에 아뢰는것)》를 《上白是》로 표기하는 경우에 《白》이 《살》의 표기로 되는데 이것은 《白》의 옹근 뜻인 《살바다(아뢰다)》에서 《살》을 리용하였다는것이다. 리두에서는 《上白是》를 전통적으로 《상살이》로 읽고있는데 이 경우에 《上》은 한자의 옹근 음을 리용한것이고 《白》과 《是》는 그 한자의 옹근 뜻인 《살》과 《이》를 리용한것으로 된다.

그는 리두식표기에서 한자의 반음(半音) 즉 절반음을 리용한 실례로서 옹근 한자음이 《백》인 《白》이 그 절반음인 《바》의 표기로 리용되는 경우를 들었다. 즉 《바라》를 《白良》로 표기하는것은 《白》의 절반음인 《바》, 《良(량)》의 절반음인 《라》를 빌어 쓴것으로서 리두에서 《白良》은 전통적으로 《바라》로 읽어왔다는것이다.

이처럼 신채호는 옛 문헌에 나오는 지명의 리두식표기와 한자어지명의 대응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는 본래 주, 군, 현의 지명이 우리 말 고유어로 불리워지고 리두식으로 표기되어왔는데 그것이 후기신라의 경덕왕시기 한자어지명으로 바뀌면서 리두식표기로 된 《推火(밀불)》이 《密城》이 되고 《今勿奴(거물라)》가 《黑壤》으로 되었다고 하였다. 즉 《밀불》의 경우에 그것을 《推火》로 표기한것은 각각 한자의 옹근 뜻을 빌어서 쓴 리두문인데 그것을 한자어지명 《密城》으로 바꾼것은 《밀불》의 《밀》을 음역하여 《密》로, 《불》을 의역하여 《城》으로 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그리고 《거물라》의 경우에 그것을 《今勿奴》로 표기한것은 《今》의 절반음을 빌어서 《거》를, 《勿》의 옹근 음을 빌어서 《물》을 그리고 《奴》의 비슷한 음을 취하여 《나》를 나타낸 리두문이라고 할수 있다.(《나》는 《물》뒤에서 닳기현상에 의하여 《라》로 된다.) 그런데 그것을 한자어지명 《黑壤》으로 바꾼것은 《거물》을 의역하여 《黑》으로, 《라(나)》도 의역하여 《壤》으로 한것이다.

신채호는 이와 함께 고유어로 된 지명단위어를 류형별로 묶고 분석하였다.

그는 《고사상 리두문 명사해석》에서 《옛 문헌을 읽다가 보면 지명의 꼬리에 달린 忽, 波衣, 忽次, 彌知 같은것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같은 부류의 지명을 묶을수 있다고 하였다. 즉 《彌鄒忽, 述爾忽, 比列忽, 冬比忽》의 《忽》이 같은 부류의 《골》의 표기일수 있다고 하였으며 《租波衣, 仇斯波衣, 別史波衣》의 《波衣》 역시 같은 부류의 《바위》의 표기로 볼수 있겠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그리고 《甲比忽次, 要隱忽次, 古斯也忽次》의 《忽次》는 반도(半島)를 가리키는 우리 고유어인 《고지》임이 분명하고 《松彌知, 古

馬彌知, 武冬彌知》의 《彌知》는 《수만(水灣)》을 가리키는 우리 고유어인 《미지》임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松山の 옛 이름이 夫斯達이고 松峴의 옛 이름이 夫斯波衣이며 松嶽의 옛 이름이 扶斯岬인즉 松과 夫斯가 서로 따라다니는 원인으로 인하여 松의 고어가 <부스> 곧 <夫斯>인줄 알지니라.》고 하였다.

신채호는 지명에 대한 언어적인 고증을 통하여 같은 이름이 우리 강토의 여러곳에 널려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그 어원을 밝히었다.

그는 《한양의 남산도 木覓이오 평양의 남산도 木覓인즉 남산과 목맥이 서로 떨어져 지 않는 관계로 인하여 木覓은 마메 곳 南山의 리두문》이라고 하였다. 즉 《마》는 《南》에 대응하는 우리말 고유어이며 《메》는 《山》에 대응하는 고유어라는것을 밝혔다.

그는 옛날에 우리 고유어로 《長》을 《아리》라고 하였는데 《鴨》은 《아리》의 표기로도 된다고 하면서 《鴨水一名阿利水》가 이것을 증명하는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옛날에는 모든 《長江》을 대체로 《아리가람》이라 하였는데 그것을 리두식으로 표기할 때에는 《아리》의 음을 취하여 《阿利水, 烏列江, 郁里河》등 여러가지로 썼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이 차지한 넓은 강토에는 도처에 《아리가람》이 많은데 그 리두식표기는 각이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다같은 우리 말 《아리가람》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료하를 보고도 《아리가람》이라고 하였는데 《삼국사기》지리지의 《遼東城 本名 烏列忽》과 《삼국유사》의 《遼河 一名 鴨綠》의 《烏列》와 《鴨綠》은 다 《아리》의 리두식표기로서 료하의 옛 이름이 《아리가람》임을 증명하는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한강을 보고도 《아리가람》이라고 하였으며 온조본기의 《慰禮城》과 광개토왕비문의 《阿利水》, 개로왕본기의 《郁里河》가 다 한강의 옛 이름인 《아리》임을 증명하는것이라고 하였다.

신채호는 지난날 일부 학자들이 리두식표기를 홀시하고 한문만 숭상한데로부터 어원의 옳바른 해석이 주어지지 않았던 사실도 지적하였다.

그는 《력옹패설》에서 신라의 진흥왕이 마치 김제 만경들에 벼종자를 심게 하여 후세 사람들이 그 은덕을 길이 전하기 위해 벼를 《羅祿》이라고 했다고 서술하였는데 이것은 당치 않은 말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羅祿》은 우리 말인 《나락》의 리두식표기라고 하면서 벼가 진흥왕시기 새로 받아들인것이 아니라 백제에서 예로부터 심어온 곡식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그는 이 고장이 오래전부터 벼를 심어온 곳, 《벼골》이기때문에 김제의 옛 이름을 《碧骨》이라 하였으며 백제가 제방을 쌓아서 논을 푸는데 리용한 저수지도 《碧骨堤》라고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신채호는 《조선사연구초》에 수록한 《삼국지 동이전 교정》에서 서로 다른 문헌에 소개된 리두식표기의 본질을 밝히면서 일부 오자들도 바로잡았다.

그는 관직명으로 《변진전》에서는 《借邑》, 《한전》에서는 《邑借》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고구려의 관직명 《鬱折》과 통하는것으로서 《일치》의 리두식표기로 볼수 있다고 하였다. 이로부터 그는 《변진전》의 관직명 《借邑》은 《邑借》의 오기로 볼수 있다고 하면서 이로부터 《울지문덕》의 《乙支》가 관직명이라고 하였다.

한편 《조선사연구초》에 수록한 《삼국사기중 동서량자 상환고증》에서는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자기 민족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에 대한 그릇된 태도에서 한문만을 숭상하고 리두문은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있다는데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김부식이 《리두문에 무식하므로 모든 알기 쉬운 국어의 관직명도 “夷言不知其意”(조선말은 그

뜻을 알수 없다.)라고 주를 달았으며 설상가상으로 리두문에 대한 배척과 혐오가 심하여 신라의 향가를 한편도 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리두식표기로 된 사람이름을 서술하는데서 범한 오류를 실례를 들어가며 지적하였다.

신채호는 《發岐》와 《拔奇》는 같은 사람의 이름을 리두문으로 서로 다르게 표기한것임에도 불구하고 김부식이 하나는 《고구려사》에 근거하고 다른 하나는 중국문헌에 근거하여 《삼국사기》(권 16 고구려본기 4)에서는 마치 서로 다른 사람인듯이 만들어버렸다고 하였다. 그리고 《삼국사기》의 연개소문전에서 《그 아버지는 東部大人이다.》라고 쓰고 주에서는 《혹은 말하기를 西部大人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는데(권 49 렬전 9) 본문과 주의 인용이 서로 다르게 된것은 그중의 하나는 한문문헌에 의거한것이고 다른 하나는 리두문헌에 나온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려보지 못하였기때문에 이런 모순된 서술을 하게 된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우리 말에 東方을 《시》라 하고 西方을 《한》이라 하므로 삼국시대 학자들이 한자를 취하여 리두자를 만들 때에 西字의 음 《시》를 취하여 東을 西로 쓰며 그 대신에 西를 東으로 써서 東西兩字가 바뀌어있었다는것이다. 즉 동방의 우리 말인 《시》를 음역한것이 《西》이며 그것을 의역한것이 《東》이라는것이다. 그런데 리두문에 대한 이해부족으로부터 그 본질을 밝히지 못하고 《삼국사기》에서는 본문과 주의 인용을 모순되게 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이처럼 신채호는 언어학전문가가 아니였지만 우리 나라 역사를 서술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언어문제와 관련하여 애국주의적립장에서 서술하는데서 자기의 독특한 견해를 내놓음으로써 역사언어학발전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